장흥 해당산단 산업용지 분양

전남개발공사, 125만㎡ 3년 분할납부 방식

전남개발공사는 장흥군 장흥읍 삼산·해당·향양리 일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지구 내 산업시설용지 57필지 총 124만7천330㎡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분양한다고 7일 밝혔다.

필지별 분양면적은 9천915㎡에서 5만5천407㎡까지이며 판매가격은 ㎡당 11만6천594원으로 가장 큰 필지(5만5천407㎡)의 경우 판매가가 64억6천만원이다.

신청대상은 음·식료품, 조립금속제품, 의료정밀 광학기기, 화합물 및 화학제품 업종 등 일반제조업에 한하며 경쟁이 될 경우 장흥군 및 전남도와 MOU(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거나 입주추천을 받은 업체 등이 1순위가 된다.

대금납부는 3년 분할납부 방식으로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10%를 내며 잔금은 3년간 매년 6개월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해 납부하면 된다.

입주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입주계약 체결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장흥군청에서 진행하고 분양계약 체결은 다음달 5일부터 31일까지 전남개발공사에서 실시한다.

현재 해당산단 입주를 희망해 MOU를 체결한 기업은 9곳(675억원)으로 추가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해당산단은 도내 부족한 공장용지 확보와 공급을 위한 산업시설, 지원시설, 체육시설(골프장) 등 친환경적인 특성화된 산업단지로 조성된다.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국도 2호선, 장흥역과 가깝고 공항(무안, 광주), 항구(목포, 여수, 광양)와도 1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해 타 산업단지에 비해 좋은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개발공사 고객맞이팀(080-285-0600)과 장흥군청 기업지원과(061-860-0783)로 문의하면 된다.

/장필수기자 bungy@

설 앞둔 강진만 꼬막 채취

강진만(灣)이 설 제수용으로 사용될 꼬막을 채취하는 아낙들로 북적거리고 있다. 예년에 비해 혹독한 추위가 계속된 올 겨울날씨 탓에 꼬막 수확량이 감소, kg당 평균 3천 원 이상 올라간 1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광산구 성문화센터 개소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에 기여할 광산구 청소년성문화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시 광산구는 전갑길 광산구청장, 강지원 변호사,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를 비롯 3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광산구 청소년성문화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광산구 청소년수련관 3층에 자리잡은 센터는 193㎡ 규모의 공간에 섹슈얼리티 체험관과 사무실, 상담실을 갖추고 있다.

섹슈얼리티 체험관은 자궁방, 임산부 체험, 시청각 자료 등 성교육을 위한 체험과 관람을 할 수 있다.센터에서는 성에 대한 상담과 발달단계별·주제별에 맞는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와 아동청소년 유관기관 실무자, 스포츠 관계자 등에 적합한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기원태기자 wtkee@

나주출신 기업인 개발 내방사선 카메라

UAE 원전수주 큰 기여

나주 출신 기업인이 개발한 핵심 기술이 지난해 12월 27일 아랍에미리트(UAE)가 발주한 총 400억달러(약 47조원)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데 큰 기여를 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나주시 다시면 출신인 임성훈(50·사진) (주)뉴크론 대표.

(주)뉴크론은 원전을 안전하게 가동하는데 필요한 핵심기술인 '컬러 CMOS 내방사선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며, 이번 UAE 공사에 한국수력원자력과 공동 참여했다. (주)뉴크론 수주금액은 100억원 규모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뉴크론과 영국의 IST-REES사 등 4개사만이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 가능한 내방사선 카메라를 제작하고 있지만 (주)뉴크론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흑백 영상 시스템이다. 특히 가격면에서 기존 외국산 에 비해 흑백은 70%, 컬러는 50% 선에서 공급 가능해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유지보수 등에서도 상당한 이점을 확보해 이번 공사 수주 과정에 많은 이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성훈 대표는 '국내외 시장규모가 수천억원대로 대폭 늘어날 뿐만 아니라 IT강국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나주 읍성 문화 지도 발간

나주시는 읍성권 지역에 산재한 문화재 사진에다 해설 등을 덧붙인 '나주 읍성권 문화재 지도'를 제작, 발간했다.

이 지도는 주민자치대학 역사문화마을 만들기 과정에 참여한 주민들이 광주YMCA의 협력을 받아 현장 답사 등을 거쳐 완성했다.

지도 앞면에는 문화유적 답사 코스, 금성관을 비롯한 나주 읍성권 문화재 사진, 해설 등을 담았으며 뒷면에는 문화재 위치 등을 표시했다. 시는 지역 방문 관광객에게 지도를 나눠주고 각종 축제와 이벤트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나주시 성북동, 금계동 등 옛 나주 읍성 권역에는 금성관, 목사내아, 나주향교 등 고려시대 이후 도읍지로 자리잡았던 지역답게 각종 문화재 등이 산재해 있다.

/중부취재본부=정칠현기자 chjung@

나주배 설 대목 신났다

대도시 직판장·인터넷 쇼핑몰 판촉효과

가격 오르고 판매 급증…물량 부족할 판

설 명절을 1주일여 앞두고 나주배 판매량이 급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명품 나주배에 대한 판촉 활동이 전시 판매장과 대도시 직판장,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전개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주말과 휴일에도 직판장과 전시판매장이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는데다 농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APC)도 정상가동을 하면서 나주배가 물량 부족상태마저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나주배가 부족 사태를 빚은 것은 APC 가동과 조기출하로 전체 생산물량의 65%가 판매된데다 농가의 보유물량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마트와의 유통협약을 통해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면서 가격 또한 지난해에 비해 20%이상 높게 형성되고 있다.

'비단고을 나주배' 브랜드로 노안면 직판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배의 경우 7.5kg(10개 들이) 한상자에 2만8천원, 15kg(20개 들이) 한상자에 5만3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 나주원협 공판장과 광주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 등에서도 7일 기준으로 1주일 전에 비해 최고 9.5%에서 최저 5%이상 오른 가격에 거래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를 비롯해 동대문구청, 서대문구청, 과천종합청사 등 수도권에서 해 오던 직판행사 및 대규모 시식회를 올해는 처음으로 영남권으로 확대해 주요기관 및 대기업 등을 방문, 나주배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홍경섭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나주배는 암 예방과 기침억제, 담 제거 등에 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만큼 설 선물로 제격"이라며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배는 과감히 골라내는 등 철저히 선별해서 명품 나주배의 진면목을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칠현기자 chjung@

光州日報 전남중부취재본부

광산 강진 나주 담양 영암 장성 장흥 화순

본 부 장	김용기
	기원태 국장
	최승렬 부장
	이상휴 차장
	정칠현 기자
	남철희 기자
	정운수 기자
	김용호 기자
	노정훈 기자

장성 하수종말처리시설 100억 투입 내년말 완공

장성군이 군민의 생활터전이자 안식처인 황룡강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환경 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환경의식 개선에 나선다.

장성군은 지난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말 완료를 목표로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장성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방류수 기준을 강화해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농업용 시설하우스에 방류수를 재이용함으로써 시설하우스의 용수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축분뇨와 공장 오·폐수 처리를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폐수종말 처리시설도 설치한다. 환경사업소내에 가축분뇨의 완벽 처리를 위해 130억원을 들여 이달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착공 예정이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